이베로아메리카 제6권(2004년)

콜롬비아 메데진 카르텔의 부상과 몰락의 원인분석

- 범죄성 마약밀매에서 정치성 마약테러로의 전환에 초점 -

조 성 권*

<Abstract>

The Medellin cartel as a criminal organization challenged the Colombian state over ten years with the heavy campaign of narco-terrorism. The main goal of the paper is to explore and interpret the causes of the rise of fall of the Medellin cartel in Colombia. To do this, this paper, firstly, explain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drug trafficking in Colombia. Secondly, this paper addresses the origin and growth of the Cartel. Finally, the paper analyses how the Cartel brings down upon itself deploying the terrible narco-violence from criminal to political terrorism toward the legitimacy of the Colombia state.

Key Words: Colombia / drug trafficking / narco-terrorism / Medellin cartel / political corruption

주제어: 콜롬비아 / 마약밀매 / 마약테러 / 메데진 카르텔 / 정치부패

Ⅰ.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1993년 12월 콜롬비아에서 10년 넘게 게릴라 조직도 아닌 일개 마약조직인 메데진 카르텔이 거의 10여 년 동안

*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마약학과

정부군과 투쟁을 벌이면서 부상과 몰락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약테러리즘이다. 그러나 마약테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근원인 콜롬비아 마약밀매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데진 카르텔의 기원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메데진 카르텔의 조직구조와 권력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석을 통해 메데진 카르텔의 성장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 및 분석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개 범죄조직이 그렇게 빠를 시일 내에 세계적인 범죄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주요 원인들을 진단할 수 있다.

한편 불법마약 비즈니스에서 마약밀매와 마약테러는 앞에서 지적했듯 항상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왜냐하면 마약조직에게 마약밀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알을 낳는 불법 비즈니스이고 마약테러는 그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Cho 1994,116-143).[2] 마약비즈니스로 획득한 마약자금으로 카르텔은 부패와 폭력을 전개하였고 이 핵심적 두 요인들이 카르텔을 오랫동안 지탱해준 두 가지 주요한 축이었다. 물론 이러한 내적 요인 외에도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정책이 비공식적으로 비폭력적 코케인 밀매는 묵인한 반면 폭력적 코케인 밀매는 억압하는 이중성과 같은 외적 요인도 있다. 끝으로 카르텔을 급성장하게 만든 핵심 추진력인 창(폭력)과 방패(부패)는 아이러니컬

2) 콜롬비아의 경우 메데진 카르텔에 의한 마약테러의 전체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마약밀매에 대한 지식은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거시적 해답은 물론 마약 비즈니스에 개입된 일련의 행위자들(좌익 게릴라조직들, 우익 자경단, 그리고 칼리 카르텔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이 글의 연구범위를 넘어선다.

하게도 동시에 몰락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카르텔의 몰락원인으로 이 연구는 그 조직이 어떻게 범죄성 마약밀매에서 정치성 마약테러로 변화하면서 몰락의 길로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Ⅱ. 콜롬비아 마약밀매의 역사적 배경

1958년 콜롬비아의 자유당과 보수당은 10년 넘게 지속한 폭력시대(*La Violencia*: 1948-1958)를 종식시키기 위해 4년마다 번갈아 정권을 서로 주고받는 정치협약인 국민전선(*El Fronte Nacional*: 1958-1974)을 형성한다. 이후 콜롬비아에서 현대적 마약밀매의 역사는 국제적 밀거래 측면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Jaramillo and Velez 1984, 161).[3] 첫째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말까지 약 10년간 지속된 밀수시대이다. 둘째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지속된 마리화나 밀매시대이다. 셋째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코케인 밀매시대이다. 끝으로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주종인 코케인 밀매와 함께 꾸준히 헤로인과 마리화나 밀매를 병행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메데진 카르텔의 부상과 몰락에 연구범위를 한정함으로 90년대 이후의 코케인, 헤로인, 마리화나 밀매시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콜롬비아에서 메데진 카르텔의 지역적 기반은 서북부에 위치한 안티오키아州(*Departomento de Antioquia*)의 수도인 메데진(*Medellin*)이다. 메데진은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Santa Fe de Bogota*) 다음

3) 콜롬비아에서 마약밀매의 역사는 1940년말 까지 추적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국내소비에 한정된다.

으로 큰 도시이다. 1950년대 말경 안티오키아州에서 밀수시대의 등장은 그 지역의 경제상황의 쇠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그 지역의 지배적 경제분야는 섬유산업이었는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상대인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등장으로 그 지역의 섬유산업은 몰락하게 된다. 노동집약산업인 섬유산업의 몰락은 그 주의 인구 중에서 55.4%인 약 77,000명이 실업으로 이어지면서 밀수와 같은 비공식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한다(Salazar and Jaramillo 1992, 28). 콜롬비아 경제학자들인 살라자르와 하라미요(Salazar & Jaramillo)는 이러한 경제악화가 안티오키아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주민들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paisas*: 안티오키아 주민을 의미하는 말로 돈을 벌려는 모험적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기업가 능력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Salazar and Jaramillo 1992, 28).

따라서 안티오키아 주민들은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의 이점을 가지면서 안티오키아 북부해안을 상품의 중심적 밀수장소로 만들었다. 이 곳에서 60년대 동안 미국의 사치품과 콜롬비아의 커피, 금, 에메랄드를 밀거래하면서 막대한 불법수익을 획득하였다. 이 초기 밀수시대는 다음 세대인 70년대 마리화나와 코케인 밀수조직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하나는 해로를 이용한 밀수운송수단의 패턴과 그 과정의 부수물인 법집행기관들에 대한 뇌물제공에 따른 부패문화의 형성이다. 다른 하나는 파이사라는 정신에 고무된 밀수조직들 사이의 동료적 집단의식의 확산이다. 특히 후자는 소규모 범죄조직의 초기형태인 패밀리의 양식으로 발전하였다(Lupsha 1981a, 104; Castillo 1987, 19 & 65). 예를 들면, 밀수조직으로 카르데나스와 발레브랑

케스 패밀리(*Cardenas & Valebranques* families), 마리화나조직으로 아르멘타와 히메노 패밀리(*Davila Armenta & Raul Davila Jimeno* families), 그리고 코케인 조직으로 오초아 패밀리(*Ochoa* family)를 들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 주로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적 수출품목으로서의 마리화나의 재배와 생산은 미국에서 베트남전 참여에 반대하는 반전운동과 히피족이 등장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마리화나 흡연이 유행처럼 번진 1960년대에 시작한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콜롬비아에서 마리화나가 수출시장에서 주요 '선택의 마약(drug of choice)'이 되었다. 이를 기회로 콜롬비아 밀수조직들은 사치품 밀수보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마리화나 밀매로 업종전환을 시작한다(Lupsha 1981a, 104). 이들 소규모 밀수조직들이 마리화나 밀매에 개입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마리화나 카르텔(the North Atlantic Coast Cartel)의 형성에 기반이 된다. 이들 조직들은 곧 1980년대 마리화나대신 코케인이 '선택의 마약'이 되면서 메데진 카르텔의 미국으로 향하는 코케인 운송을 위한 핵심적 하부구조를 형성한다(Castillo 1991, 44).

마리화나의 주요 경작지는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海에 위치한 구아히라(*Guajira*) 반도이다. 럽샤(Peter A. Lupsha)는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콜롬비아 마리화나의 대량생산에 기여한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첫째, 미국시장에서 콜롬비아 마리화나에 대한 수요증가; 둘째, 1974년 자메이카 마리화나 플랜테이션에 대한 박멸작전(Operation Buccaneer); 셋째, 밀수시대에 밀수루트의 사전정착; 넷째, 1975년 멕시코산 마리화나에 대한 성공적인

박멸작전 등이다(Lupsha 1981a, 105).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0년대 초반 오일파동에 따른 1975년 세계경제위기의 상황 하에서 콜롬비아는 두 가지 수출품목인 커피와 마리화나의 수출덕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먼저 커피의 경우 브라질에서 냉해로 인한 브라질산 커피생산의 급감은 국제커피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콜롬비아산 커피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커피수출은 콜롬비아 국내에서는 통화량의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결국 콜롬비아 정부의 선택은 통화량을 규제하는 긴축정책인 안정화 정책이었다(Lupsha 1981b, 7-8). 이 정책은 커피생산자들에게는 커피를 정상적 수출이 아닌 밀수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문제는 커피밀수로부터 획득한 지하자금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마리화나와 코케인의 재배와 생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Lupsha 1981b, 7-8). 이러한 대내적 조건 외에도 대외적 조건은 앞에서 지적했듯 1975년과 1977년 멕시코산 마리화나에 대한 제초제 살포인데 이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멕시코산 마리화나에 대한 수요감소를 유도한 반면 콜롬비아산 마리화나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70년대 말까지 콜롬비아산 마리화나 수출붐의 추진력과 동시에 코케인 밀매가 시작된 것이다. 1970년대 말경 콜롬비아산 마리화나 밀수의 쇠퇴와 코케인 밀매의 부상은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 작용되었다. 하나는 미국시장에서 마리화나대신 코케인이 대중적인 '선택의 마약'으로 선호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78년 11월 콜롬비아 최대의 마리화나 경작지인 구아히라 반도에서 콜롬비아 경찰과 군이 동원된 대규모 박멸작전(Operation Fulminate)이다.

이런 요인들이 콜롬비아 마약밀매자들로 하여금 훨씬 수익성이 높은 코케인 밀매로 전환시킨 것이다.

콜롬비아에서 코케인 밀매의 시작은 1973년 칠레에서의 군사쿠데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쿠데타는 60년대 동안 칠레를 라틴아메리카 코케인 정제의 중심국에서 몰아냈지만 상당수의 칠레 코케인 정제기술자들을 이웃나라인 콜롬비아로 이주시킴으로써 결국 콜롬비아를 코케인 정제의 새로운 중심부로 발전시켰던 것이다(Walker 1981, 197; Gugliotta and Leen 1989, 22). 이와 유사한 사례가 60년대 말 유럽 및 미주지역에 대한 국제헤로인밀매의 주역이었던 터키 마약조직과 프랑스 코르시칸 조직의 소위 '프렌치커넥션(French Connection)'이다. 이 커넥션은 미국과 프랑스의 합동단속으로 붕괴되었지만 코르시칸 조직의 헤로인 정제기술자들의 대부분이 이태리 시실리 섬으로 도주하여 후에 시실리 마피아를 국제헤로인 밀매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시킨 계기를 형성하였다.

물론 1973년의 쿠데타 이전 국제적인 코케인 밀매는 낮은 수요로 인해 제한적이었다. 이 당시 국제적 코케인 밀매의 일반적인 분배구조는 네 단계였다. 첫째,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코카잎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단계; 둘째, 칠레에서 코케인으로 정제하는 단계; 셋째, 콜롬비아출신의 운반자(*mulas*)에 의해 운송하는 단계; 넷째, 쿠바혁명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마약밀매를 추진한 쿠바조직이 미국의 소비시장으로 분배하는 단계이다. 한마디로 이 기간에 콜롬비아인들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코케인 밀매구조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3년 쿠데타는 이 코케인 밀매구조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지만 일부 콜롬비아 조직들을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시킨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대표적인 콜롬비아 조직들의 하나가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8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제1세대인 "코케인 카우보이(cocaine cowboys)"로 알려진 조직이다. 이들은 플로리다州 마이애미市에서 미국시장의 주역이었던 쿠바조직과의 두 차례에 걸친 소위 "코케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콜롬비아보다 양질의 코카잎을 생산하면서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조직보다 콜롬비아 조직들이 중남미 코케인 밀매의 주역으로 등장한 이유에 대해 저명한 학자인 리(Rensselaer W. Lee)는 대내적인 다섯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 첫째, 앞에서 지적한 파이 사의 월등한 기업가적 능력; 둘째, 미국시장으로의 지리적 인접성; 셋째, 大폭력시대이래 미국으로 망명한 수많은 콜롬비아인들의 잠재적 분배자로서의 역할; 넷째, 앞에서 지적했듯 기존의 밀수와 마리화나 밀매조직이 보유한 오랜 전통의 인프라의 존재; 끝으로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없애는 폭력의 사용이다(Lee 1989, 23-34). 이러한 요인과 함께 앞에서 럽샤가 지적했듯 또 다른 요인은 1970년대 중반 커피밀수로부터 획득한 불법수익을 코케인 정제를 위한 재정적 하부구조의 강화에 투자한 것이다.

콜롬비아 조직들이 중남미 코케인 밀매의 주역으로 등장한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콜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의 마약단속국(DEA)도 1970년대 중반이래 1980년대 초반까지 코케인 밀매의 부상을 간과한 점이다. 콜롬비아 정부의 경우 주요 관심사는 1970년대 중반이래 좌익 게릴라 조직들의 점증하는 준동이다. 미국 마약단속국의 경우 주요 관심사는 미국으로 유입하는 아시아산 헤로

인과 콜롬비아산 마리화나이다(Miami Herald 1987/02/08).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과 함께 미국 마약소비자들 사이에 새로운 '선택의 마약'으로 코케인의 선호가 제2세대인 메데진 조직들로 하여금 1980년대 10년 동안 황금기를 구가하도록 만들었다. 한마디로 안티오키아州 출신의 제1세대 및 제2세대인 콜롬비아 마약조직들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들의 새로운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면서 코케인 밀매사업을 발전시켰다.

Ⅲ. 메데진 카르텔의 기원과 발전

메데진 카르텔의 기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내적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그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이해에 유용하다. 그리고 카르텔의 발전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핵심적인 권력메커니즘인 불법마약자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마약자금으로 메데진 카르텔은 거의 10년 넘게 콜롬비아 정부는 물론 사회에 대한 폭력(*sicarios*: 청부살인업자)과 부패를 양산한 것이다. 메데진 카르텔의 급성장의 추진력인 창(폭력)과 방패(부패)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시에 몰락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먼저 그 조직의 내적 구조를 살펴보자.

1. 메데진 카르텔의 내적 구조

전통적으로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 명명되었던 메데진이 악명

높은 폭력의 도시로 변모한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메데진 출신의 조직들이 코케인 밀매를 추진하고 부터이다. 파이사라는 독특한 지역적 동질성과 아이덴티티는 메데진 카르텔의 내적 구조의 이해에도 적용된다. 메데진 카르텔의 보스이면서 핵심 멤버였던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와 오초아 형제(Ochoa brothers)들이 메데진 출신의 파이사스이다. 이 외에도 90% 이상의 중간보스와 조직원들이 메데진 출신이다. 메데진 출신이라는 파이사 의식의 사회문화적인 일체감의 연대가 카르텔의 결속력을 유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Salazar and Jaramillo 1992, 31). 다시 말하면 카르텔의 멤버들은 파이사 의식으로 무장한 독특한 가족적인 지역적 유대감과 함께 콜롬비아 사회의 전통적 사회관계인 후견주의(clientalism)를 결합시킴으로써 향후 궁극적으로 메데진 카르텔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무형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것이다.[4] 이러한 파이사 의식은 설사 직접적으로 불법마약사업에 개입하지 않은 메데진 출신의 사람들에게 마약밀매를 수월하게 하는 부패문화를 양산하였고 간접적으로 불법마약사업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1981년 초창기 메데진 카르텔은 다소 느슨한 수평적 조직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네 명의 보스(Pablo Escobar, Jorge Ochoa, Jose Rodriguez, Carlos Lehder)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인 수직적 조직으로 변하였다. 80년대 중반경 오초아는 콜롬비아 정부와의 투쟁에서 개인적으로 폭력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인해 조직의 리

4) 콜롬비아 학자들은 파이사 의식이라는 지역적 동질감이 공개적인 사회적 유대감으로 제도화된 것을 아푼타다(la apuntada) 제도라고 부른다(Jaramillo and Velez 1984,184-185). 시실리 마피아가 폐쇄적인 순수한 가족적 집단을 주축으로 하였다면 메데진 카르텔은 공개적인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가족적 집단이었다.

더십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졌다. 대신 폭력을 선호하는 에스코바르와 로드리게스가 중심인물로 부상하였다. 메데진 카르텔의 리더십에서의 변화는 그 조직의 성격을 마약범죄조직에서 점차적으로 마약테러조직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카르텔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약밀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경제적인 요인이었으나 에스코바르와 로드리게스의 아집과 야망이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약테러를 수단화하면서 정치적인 요인으로 변하였다.

카르텔의 내적 구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네 명의 중심인물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메데진 출신의 파이사인 오초아(별명: *El Gordo*, 뚱보)는 그의 아버지 역시 마약밀매자였으며 삼형제 중에서 둘째이다. 그는 나머지 두 형제와 함께 1970년대 중반 처음으로 코케인 밀매에 개입하면서 미국 소비시장의 분배 네트워크를 공고화하였다. 에스코바르(별명: *El Doctor*, 박사)는 마찬가지로 메데진 출신의 파이사로 1970년대 중반 자동차 절도로 시작하여 곧 수익이 많은 코케인 밀매에 개입하였다. 1970년대 말경 에스코바르와 오초아는 파이사로서 서로 만나 코케인 밀매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가 생산을 후자가 분배를 담당하면서 분업화하였다(Castillo 1987, 66).

로드리게스(별명: *El Mejicano*, 멕시코 마리아치 음악이 취미)는 콜롬비아 출신이나 파이사는 아니었다. 그는 1970년대 중반 불법 에메랄드 밀매를 시작하였고 후에 몰리나(Giberto Molina) 에메랄드 조직의 2인자가 되었다. 그는 이때 에메랄드 지역의 군부와 밀접한 유대를 맺는다. 불법 에메랄드 밀매에서 확보한 불법자금으

로 그는 1970년대 말 코케인 밀매에 뛰어들었다. 레데르는 로드리게스처럼 파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1970년대 중반 마리화나 밀매를 시작으로 1970년대 말 미국으로 향하는 마리화나 및 코케인을 운송하는 비행기의 중간기착지로 이용하기 위해 바하마 군도의 한 섬(Norman's Cay)을 통째로 구입하였다. 이를 위해 바하마의 수상을 매수하기도 하였다(Castillo 1987, 90). 후자의 이 두 사람이 비록 파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1년 메데진 카르텔을 형성할 때 핵심인물로 부각된 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능 때문이다. 즉 로드리게스는 불법 에메랄드 밀매에서 획득한 자금과 친분있는 군부가 있었으며 레데르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코케인의 운송 및 분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흥미있는 것은 비록 레데르가 메데진 카르텔의 리더십에는 속하여도 그는 개인적으로 코케인 정제소를 소유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주류에는 벗어난 아웃사이더였다는 사실이다(Jaramillo and Velez 1985, 118-122; Lee 1990, 10). 이런 이유로 1984년 콜롬비아 법무장관이 메데진 카르텔에 의해 피살된 이래 메데진 카르텔과 정부와의 전쟁으로 카르텔이 압박을 받자 카르텔의 주류 보스들이 아마존 정글에 숨은 레데르의 은식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87년 2월 레데르는 체포되어 곧 바로 미국으로 압송되었다.

<표 1> 메데진 카르텔의 코케인 밀매의 분업화

리더십	주요기능
Pablo Escobar Gaviria	코케인의 생산
Jorge Ochoa Vazquez	코케인의 분배와 재정
Jose Rodriguez Gacha	코케인 원료의 공급
Carlos Lehder Rivas	코케인의 운송

자료: Abadinsky 1990, 232-246.

<표 1>에서 보듯 메데진 카르텔의 코케인 밀매사업은 네 명의 보스들에 의해 분업화되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우선 메데진 카르텔은 콜롬비아산보다 질이 좋은 코카잎을 소유한 페루나 볼리비아로부터 코카잎을 1차 혹은 2차적으로 정제한 코케인의 원료라 할 수 있는 코카 페이스트(coca paste) 혹은 코케인 베이스(cocaine base)를 구매한 후 이를 콜롬비아의 남동부에 위치한 아마존 정글에서 최종적으로 코케인을 생산한다.[5] 생산단계 다음은 운송단계이다. 초창기인 70년대 중반동안 운송수단은 개인(*mules/mulas*) 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 말 레데르가 카르텔에 참가하자 운송수단은 세스나 경비행기로 바뀌었고 코케인 운송규모가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미국으로 향하는 콜롬비아 코케인 밀매는 레데르의 바하마 군도의 한 섬(Norman Cay)을 중계지로 이용하였다. <표 2>는 메데진 카르텔에 의한 국제 코케인 밀매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

5) 1980년 볼리비아에서의 군부 쿠테타(일명: 코케인 쿠데타)로 인해 이 패턴은 변해 콜롬비아 조직들은 남부 밀림지대에 대량으로 코카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상세한 내용은 Bagley 1986, 90).

<표 2> 메데진 카르텔에 의한 국제 코케인 밀매의 기본적인 구조

코케인 밀매의 기본구조	장소
- 코카나무의 재배	- 페루 및 볼리비아(후에 콜롬비아)
- 1차 정제(coca paste/cocaine base)	- 페루 및 볼리비아
- 2차 정제를 위한 필수화학물 수입	- 브라질
- 2차 정제 및 생산(cocaine)	- 콜롬비아
- 운송	- 카리브해안, 파나마, 멕시코
- 분배 및 소비	- 미국 및 서유럽
- 코케인 자금세탁	- 미국 및 파나마
- 재투자	- 미국 및 콜롬비아

2. 메데진 카르텔의 권력메커니즘: 마약자금을 통한 부패와 폭력

앞 절에서 지적했듯 메데진 카르텔의 발전원인의 하나는 독특한 내적인 조직구성임을 지적했다. 이 절은 또 하나의 원인으로 그러한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코케인 밀매를 통해 막대한 불법마약자금을 획득하면서 조직자체가 게릴라처럼 국가와의 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무장화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무장화의 원천은 다름 아닌 마약자금이다. 또한 메데진 카르텔은 마약자금으로 콜롬비아 군부 및 경찰군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콜롬비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뇌물과 매수를 통해 콜롬비아를 부패시킨 것이다. 이러한 콜롬비아 사회의 부패화가 카르텔 발전의 중요한 동인이었다. 한마디로 마약자금은 메데진 카르텔의 핵심적인 권력메커니즘인 동시에 메데진 카르텔이 무장화를 통해 국제적인 마약조직으로 급부상하는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메데진 카르텔의 권력메커니즘으로의 마약자금이 어떻게 콜롬비아 마약

부패의 심화를 촉진하였는가를 분석한다.[6]

前페루 대통령이었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코케인이 라틴아메리카의 유일한 성공적인 수출품목이 될지 모른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마약밀매조직들에게 코케인 밀매로부터 획득되는 거대한 불법마약달러는 코케인을 생산하는 안데스 3국(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에게는 정치 및 경제권력의 핵심적인 소스가 되어왔다. 전형적인 예를 들면 볼리비아의 코케인 밀매의 보스인 고메스(Roberto Suarez Gomez)는 1980년 소위 "코케인 쿠데타"로 불린 군부쿠데타의 주역의 하나였다.[7] 또 다른 사례는 1984년 콜롬비아 법무장관을 암살한 메데진 카르텔은 그들의 사면을 조건으로 反마약 캠페인의 재정지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Miami Herald, 1984/07/23). 콜롬비아에서 마약이 정치 및 경제권력의 중요한 소스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그것의 경제구조가 불법마약달러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 미첼슨 정부(Lopez Michelsen: 1974-78) 동안 불법마약달러는 정부의 돈세탁을 묵인하는 수단을 통해 국제수지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8] 한마디로 공식경제가 비공식경제에 의존한 것이다.

일국의 공식경제가 마약밀매와 같은 비공식경제에 의존한다는 것은 정치부패의 시작이다. 이러한 정치부패는 불법행위에 정부간

---

6) 정부의 마약정책에 대한 이중성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성권 1998, 109-126)을 참조.

7) 상세한 내용은 (Naylor 1987,167-174)을 참조.

8) 전형적인 방법은 중앙은행의 소위 '예금창구(Ventanilla Siniestra)'를 개설해 각종 불법자금을 합법적으로 돈세탁한 것이다. 이 창구는 70년대는 불법적 커피 및 마리화나 밀매를 80년대는 코케인 밀매로부터 획득한 마약달러를 출처에 관계없이 환전해 주었다. 상세한 내용은(Pearce 1990, 114) 참조.

섭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범죄조직들로 하여금 불법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범죄조직들에게 정치부패의 핵심은 합법적 정치권력자들에게 뇌물을 통한 법집행으로부터의 정치적 보호인 것이다(Bequai 1979, 157-158). 전통적으로 후견주의가 지배하는 콜롬비아 정치구조 하에서 정치권력자들과 메데진 카르텔 사이의 뇌물을 매개로 한 상호협력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결국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밀매를 간접적으로 묵인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콜롬비아 전 사회를 마약부패화하는데 일조했다.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Senor Dinero Pueda Todos*)"라는 콜롬비아 속담은 적어도 80년대 마약달러가 콜롬비아 全사회를 부패화시키는데 핵심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El Espectador 1988/01/10).

마약달러에 의한 상징적인 정치부패는 메데진 카르텔의 보스인 에스코바르가 1982년 메데진 시의 예비국회의원(정식 국회의원은 Jairo Ortega Ramirez)으로 선출된 사건이다. 라미레스와 에스코바르는 당시 그들의 정치적 대부이며 자유당 보스(Alberto Santofimio Botero)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후에 이 사건은 1984년 초 의회에서 법무장관(Rodrigo Lara Bonilla)과 에스코바르 사이의 불법자금 논쟁의 원인은 물론 1984년 4월 법무장관이 메데진 카르텔로부터 암살당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불법 마약자금은 새로운 당을 형성하는 정치자금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메데진 카르텔의 레데르는 1982년 대통령 및 의회선거에서 자유당에 2,600만 페소(약 325,000달러)를 제공하였고, 1983년 그의 고향인 아르메니아에서 '라틴민족운동(*El Movimiento Latino Nacional*)'이라는 신당을 설립하면서 콜롬비아가 미국과 체결한 범

죄인인도협정의 폐지를 위한 합법적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만들었다(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1984/02/08).

콜롬비아에서 부패의 확산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 중의 하나는 국가공무원의 봉급이 낮아 뇌물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측면이다. 특히 중하위급의 판사, 세관원, 군 및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들의 봉급이 그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Craig 1985, 114).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약조직들의 뇌물을 거절하고 마약조직원을 감옥에 보내는 법집행기관들은 살해위협에 시달린다. "플라타 또는 플로모(*Plata o Plomo*: 돈 또는 총알)"라는 유행어는 콜롬비아 법집행기관의 딜레마를 나타내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더구나 메데진 카르텔로부터의 살해위협은 자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된다. 결국 법집행기관원들은 마약조직원을 체포할 경우 '부패'와 '살해위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메데진 카르텔이 10년 넘게 콜롬비아 정규군 및 경찰과 투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80년대 중반 이후 소위 콜롬비아 국가를 대상으로 마약테러리즘을 전개할 수 있었던 핵심동인의 하나였다.

메데진 시에서의 빈곤과 실업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구조는 메데진 카르텔이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 암살단(*sicarios: los Nachos, los Priscos, los Magnificos*)의 탄생에 공헌한 요인이다(Salazar 1990, 197). 이러한 청소년 암살단의 공통적인 문화적 사고방식은 "돈이 인생이다(*la plata es la vida*),"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por plata hago lo que sea*)," "목표물이 누구인지 상관없다(*no importa a quien hay que darle*)"(Salazar 1990, 28-29).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그들의 한계적인 경제상황을 탈출하기 위

해 단지 값싼 대가로 메데진 카르텔에게 고용되어 암살단의 일원으로 마약테러리즘의 도구가 된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Cho 1994, 114). 또한 이들 청소년 암살단들이 전·현직 부패한 경찰관이나 군으로부터 총기류를 구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콜롬비아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알론소 살라자르(Alonso Salazar)는 메데진 카르텔의 조직구조에 내재한 독특한 파이사 문화가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들의 사회가치체계가 암살과 자살문화로 변형된 것은 파이사, 악(*la maleva*), 근대화, 그리고 빈곤과 같은 것들이 상호 혼합되어 나타난 복합문화(*sincretismo cultural*)의 결과로 설명한다(Salazar 1990, 194). 아래 콜롬비아 살사(salsa)음악의 가사는 10대 청소년 암살단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포기의 심리적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Pronto llegará el día de mi suerte,(내 운명의 날이 곧 오리라)*
> *la esperanza de mi muerte(내 죽음의 희망)*
> *seguro que mi suerte cambiara.(내 운명이 바뀌리라 확신하면서)*
> - *Willy Colon, el ïia de suerte* -(Salazar 1990, 202)

Ⅳ. 범죄성 마약밀매에서 정치성 마약테러로의 발전

이 장에서는 마약밀매를 통해 범죄조직으로서의 메데진 카르텔이 어떻게 마약테러를 통해 정치화된 범죄조직으로 변하는 가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의 전면전을

의미하며 동시에 메데진 카르텔 몰락의 서곡이었다. 메데진 카르텔의 조직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럽샤의 조직범죄 3단계 발전론을 인용한다(Lupsha 1992, 74-75). 이를 위해 먼저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체결한 범죄인인도협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왜냐하면 그 협정은 메데진 카르텔의 10년 넘는 마약테러의 핵심적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의 범죄인인도협정은 1979년 체결되었다. 콜롬비아 대표는 당시 주미대사로 있었던 바르코(1986년 8월 대통령에 당선)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콜롬비아에서는 많은 정치적 논쟁 후에 1980년 의회에서 비준되었고 미국은 1982년에 비준하였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Law 27)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데 당시 그 협정에 대해 심정적으로 반대한 투바이(Julio Turbay Ayala: 1978-1982) 대통령이 도미니크공화국에 방문중이어서 국무장관이 대신 서명한 것이 후일 논란이 되었다. 한편 범죄인인도협정은 1986년 4월 만료되었다. 베탕쿠르 대통령은 법률안(Law 27)의 개정을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1986년 8월 바르코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해 12월 대법원은 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범죄인인도협정의 재개를 원하는 미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바르코 대통령은 그 해 12월 대통령령으로 협정의 합법화에 서명하였는데 이것이 새로운 법률(68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1987년 6월 법률 68호는 위헌법률 27호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국 바르코 정부는 1936년에 비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을 근거로

1988년 1월에 범죄인인도를 재이슈화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1988년 5월 에스코바르는 헌법재판소(*El Consejo de Estado*)에 청원하여 최종적으로 범죄인인도협정의 위헌성을 받았다. 1989년 8월 여당 대통령후보가 카르텔에 암살되자 바르코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범죄인인도를 이슈화하였다. 그러나 1991년 6월 에스코바르가 정부에 투항하는 조건으로 약 100년 만에 콜롬비아 헌법을 개정하면서 범죄인인도협약을 불법화하였다.

아래 <표 3>은 럽샤의 조직범죄 3 단계론을 이용하여 메데진 카르텔의 발전단계와 테러의 변화하는 양상을 간략히 도식화한 것이다. 약탈단계는 보통 범죄의 초기단계이다. 카르텔의 경우 이 단계는 1981년 12월 조직범죄차원의 MAS를 결성하기 이전의 지역적 규모로 활동하는 소규모 마약밀매단을 의미한다. 이 기간 범죄활동은 주로 마약관련 범죄살인, 강도, 밀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법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기생단계는 범죄활동영역이 전국적인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정치경제 시스템과 부패연결고리로 유착관계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법집행기관도 정치권력과 연계한 이들을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카르텔의 경우 1981년 MAS의 결성부터 1991년 에스코바르의 정부투항 때까지이다. 카르텔의 경우 이 기간동안 폭력행위는 주로 미국과의 범죄인인도협정을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테러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정치테러로 규정한다. 공생단계는 정치권력과의 의존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부패를 가속화시킨다. 러시아마피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메데진 카르텔의 경우 정부와의 전면전으로 공생단계로의 진입에 실패하고 오히려 사이비 혁명적 테러로 인해 급격히 몰락하는 계기가 된다.

<표 3> 메데진 카르텔의 발전단계와 테러의 변화하는 양상

	약탈단계	기생단계		공생단계의 좌절
		1단계	2단계	
기 간	70년대 중반-1981년 12월	1981년 12월-1984년 4월	1984년 12월-1991년 6월	1992년 7월-1993년 12월
마약밀매의 변화	상승	급상승	하락	급락
테러리즘의 변화	범죄테러	정치화된 테러	정치테러(마약테러)	사이비 혁명테러
정치권력과의 관계	종속	종속적 독립		독립

1. 약탈단계(predatory stage)와 범죄테러(70년대 중반 - 1981. 12)

콜롬비아에서 코케인 밀매의 선구자들은 1970년대 초에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활동한 그들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메데진과 칼리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2세대 밀매자들의 부상과 함께 점차적으로 사라졌다.[9] 1984년 콜롬비아 법무장관이 메데진 카르텔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메데진과 칼리조직들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메데진 카르텔의 기원은 앞에서 지적했듯 70년대 중반 파이사들인 오초아 3형제와 에스꼬바르에서 시작된다. 처음에 이들은 각각 별개의 소규모 조직이었고 개인적으로 코케인 밀매를 하였다. 이들 외에도 개인적으로 코케인 밀매를 하고 있었던 메데진 출신의 파이사들은 수백명이 있었다. 에스코바르의 경우 1974년 자동차 절도와 1976년 개인적 차원에서 코케인 밀매를 하다 체포된 거리 불량배에 불과하였다. 그는 1977년 코케인 밀매를 하다가 체포된 두 연방경찰관을 살해하였고 1981년에는 1976년 자신을 체포하는데 일조한 DAS(*Departomento*

9) 콜롬비아 출신 코케인 조직의 1세대는 70년대 중반에 형성하여 8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소위 '코케인 카우보이'이다. 그러나 이 조직은 메데진 카르텔에 흡수된다.

Administrativo Seguridad: 콜롬비아 FBI) 메데진 지부장(Carlos Monroy Arenas 소령)을 암살하였다. 한마디로 이 약탈단계는 에스코바르의 개인적 복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주류를 이루었다(Lupsha 1989, 68).

2. 기생단계(parasitical stage)와 마약테러(1981.12 - 1991.6)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메데진 출신 마약밀매자들을 조직적 차원에서 하나로 형성하도록 만든 사건이 1981년 11월 콜롬비아의 도시게릴라인 M-19에 의한 납치사건이다. M-19는 당시 대학생인 오초아 형제의 누이동생(Martha Ochoa Vazquez)을 안티오키아 대학교정에서 납치한 후 4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콜롬비아 마약사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었다(Castillo 1987, 111). 223명으로 추산된 메데진 출신의 마약밀매자들이 오초아 형제의 소집요청으로 메데진에 모여 1981년 12월 MAS(*Muerte a Secuestradores*: 납치자들에게 죽음을)를 형성하였다(Gugliotta and Leen 1989, 92). 메데진 카르텔의 모체인 MAS를 언론들은 후에 메데진 카르텔로 불렀다. MAS의 주요 목적은 마약밀매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을 좌익게릴라들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납치에 가담한 좌익게릴라들은 물론 그의 가족을 보복 처형하는 것이다. 약 한달 보름동안 MAS와 M-19 사이의 상호투쟁이 있었고 결국 양 조직사이의 비밀협정 후인 1982년 2월 마르타 오초아는 석방되었다.

이 사건 후 메데진 카르텔은 지하세계에서 콜롬비아 사회정치체계의 지상세계로 급부상하였다. 메데진 카르텔의 보스중의 보스로 등장한 에스코바르의 경우 "빈민촌없는 메데진(*Medellin sin*

Tugurios)"이라는 일종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불량배에서 콜롬비아판 로빈후드로 변환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방안으로 메데진 시에 거주하는 빈민가족 1,000명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그가 재정적 후원자가 된 메데진 신문(*Medellin Civico*)을 통해 선전활동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1982년 자유당 예비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레데르도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1983년에 그의 고향(Armenia)에서 그 지역신문(*Quinidio Libre*)을 인수하고 새로운 정당(MLN)을 창당하면서 에스코바르와 유사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에스코바르와 레데르의 국내에서의 정치활동과 함께 메데진 카르텔은 대외적으로 미국에서의 코케인 사업을 더욱 활발히 진행시켰다. 1981년과 1983년 플로리다주 마이매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기존의 쿠바 코케인 조직과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메데진 카르텔은 미국 남부의 마이애미에 확고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Mermalstein 1990, 67 & 169-174). 칼리 카르텔 역시 북부의 뉴욕에 코케인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그의 라이벌 조직과 경쟁적 공존상태를 유지하였다.

메데진 카르텔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럽샤가 말한 조직범죄의 초기단계인 약탈 및 기생적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에스코바르는 이제 콜롬비아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사회로의 진출에 성공하였고 바야흐로 럽샤가 지적한 조직범죄의 최후의 단계인 정치권력과의 공생단계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희망은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1982년 8월 콜롬비아의 대통

령(Belisalio Betancur Cuartas, 1982-86)이 선출되었고 1년 후인 1983년 8월 마약밀매에 강경정책을 추구하는 법무장관(Rodrigo Lara Bonilla: 1984년 4월 피살)은 의회에서 에스코바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1982년 선거가 일부 마약자금의 유입에 의한 부패선거로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 와중에 콜롬비아의 저명한 일간지(*El Espectador*: 1986년 12월 편집국장 피살, 1989년 9월 건물폭탄테러)는 1976년 에스코바르가 코케인 밀매사건으로 체포된 적이 있음을 폭로하였다. 결국 1983년 9월 에스코바르는 의회를 떠났다. 에스코바르가 떠난 직후 메데진 고등법원 판사(Gustavo Zuluaga Serna: 1986년 10월 피살)는 1977년 두 명의 연방요원에 대한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에스코바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에스코바르는 지하로 잠적했으며 후에 그들에 대한 복수를 단행하였다.

메데진 카르텔의 조직범죄 발달과정에서 기생단계는 크게 두 시기로 세분된다. 첫째는 1982년 12월 MAS의 창설부터 1984년 4월 법무장관의 암살 이전까지 메데진 카르텔의 테러행위는 한마디로 정치화된 범죄테러리즘(politicized criminal terrorism)이었다. 여기서 '정치화된'이라는 의미는 카르텔의 테러행위가 정치지향적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그 기간에 그 조직의 테러행위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좌익게릴라들과의 투쟁과정에서 좌익게릴라들의 정신적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 혹은 노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테러행위에서조차 카르텔은 수명의 경찰관들을 살해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하면 카르텔은 그들의 숙원인 미국과의 범죄인인도협약의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정부관료 혹은 지배적 정치계급을 대상으로 하

는 테러행위들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이유는 새로 선출된 베탕쿠르 정부가 미국과의 범죄인인도협정에 대해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반대하고 미국법정에서 기소된 코케인 밀매자들은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Bagley 1988, 174). 더구나 베탕쿠르 정부는 1982년 12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모든 불법자금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다. 메데진 카르텔은 협정반대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스코바르와 레데르가 주도한 정당을 통한 정치적 로비 혹은 그들이 매수한 언론을 통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1984년 4월 법무장관의 암살은 거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다. 메데진 카르텔의 테러행위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反마약작전에 군부를 동원하면서 카르텔에게 최대의 공포인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1985년 1월 처음으로 단행하였다. 카르텔 역시 이에 대항하여 공식적으로 범죄인인도협정의 폐지를 정부와의 무력투쟁의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주재 미국 대사관을 포함한 미국 시설물에 대한 폭탄테러, 범죄인인도에 서명한 판사, 카르텔을 비난하는 언론 및 고위정치인, 코케인 밀매자를 억류하고 있는 교도소, 밀매자를 소탕하는 군 및 경찰, 反마약정책을 지휘하는 검찰총장 및 고위관료 등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Cho 1994, 240-245). 이처럼 비록 일개 범죄조직에 불과하지만 범죄인인도협정의 폐지와 같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테러행위를 일삼은 것은 분명 정치테러이다. 이런 맥락에서 1984년 4월부터 1991년 6월 에스코바르가 조건부로 정부에 투항할 때까지 카르텔이 정부에 대한 테러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마약테러이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정치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카르텔과 정부사이의 긴장관계는 1984년 3월 동남부 밀림지대에 위치한 카르텔 소유의 대규모 코케인 제조공장이 反마약경찰대(책임자 Jaime Ramirez Gomez 대령, 1986년 11월 피살)에 의해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의 복수로 카르텔은 같은 해 4월 법무장관을 암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개 범죄조직이 일국의 법집행 최고책임자를 암살하고 카르텔의 악명을 높이면서 향후 콜롬비아 사회를 정치테러로서의 마약테러의 서곡이라는 공포로 몰아넣었지만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정책으로 인해 카르텔 몰락의 서곡이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비폭력을 선호하는 칼리 카르텔를 분노시키면서 두 카르텔 사이를 투쟁관계로 만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데진 카르텔 내부에서조차 분열조짐의 계기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메데진 카르텔 내에서 오초아의 개인적 비폭력성은 칼리 카르텔(Cali Cartel)의 보스인 길베르토 로드리게스(Gilberto Rodriguez Orejuela: 별명, *El Ajedrecista*/the Chess Player)전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자의 개인적 비폭력성은 양조직의 간헐적 코케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오초아와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로드리게스와의 코케인 밀매를 위한 일시적인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사례로써 양자는 법무장관의 암살 직후 스페인으로 피신하면서 콜롬비아산 코케인의 유럽진출을 모색하기도 하였다(Castillo 1991, 62).

한편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단속은 폭력을 선호하는 메데진 카르텔의 에스코바르, 로드리게스, 레데르에 중점을 두게 만들었다. 따라서 레데르는 정글로 피신하였고 나머지 두 보스는 파나마로 피신하였다. 왜냐하면 파나마에는 1982년이래 미국행 코케인 비행

기의 연료공급을 위한 중간기착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카르텔은 정기적으로 파나마 실력자인 노리에가 장군(Manuel Antonio Noriega)에게 뇌물(1대 당 10만-15만 달러)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Gugliotta and Leen 1989, 94). 법무장관의 암살 후 카르텔은 6개월 동안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초강경정책으로 실패하였다. 결국 1984년 말경부터 카르텔의 선택은 미국과의 범죄인인도협정에 대한 폐지를 목표로 하는 對정부 폭력투쟁의 선언이다. 1984년 11월 카르텔은 1명의 콜롬비아인이 미국으로 인도될 때마다 5명의 미국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콜롬비아주재 미대사관에 폭탄테러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1985년 1월 카르텔은 레데르(1987년 2월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로드리게스가 책임자)를 책임자로 하는 범죄인인도를 명령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에 대한 암살전문조직인 '인도될 자들(*Extraditables*)'이라고 명명한 조직을 결성하면서 그들의 모토를 "미국으로 인도되느니 콜롬비아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정하였다. 1985년 동안 최대의 테러사건은 11월 카르텔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M-19 도시게릴라들이 대법원 청사에 난입하면서 군부의 무력진압으로 대법관 11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사망한 것이다.

베탕쿠르 정부동안 총 13명이 미국으로 인도된 범죄인인도협정의 기간이 1986년 4월 만료되었다. 베탕쿠르 대통령은 협정의 개정을 대법관(Hernando Baquero Borda, 1986년 7월 피살)에게 요청했으나 그 해 12월 대법원은 1년 전 M-19의 대법원 청사난입사건시 군의 무력진압에 무언의 항의와 함께 위헌결정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1986년 8월 새로 등장한 바르코 정부(Virgilio Barco Vargas: 1986-90)는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대법

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법무장관(Erique Low Murtra, 1991년 4월 피살)과 검찰총장(Carlos Mauro Hoyos, 1988년 1월 피살)의 사법적 조언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협정의 개정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콜롬비아 양대 신문의 하나인 편집국장(Guillermo Cano Isaza, 1986년 12월 피살)은 열열이 환호하였다. 이러한 범죄인인도협약의 찬성에 대한 카르텔의 반응은 관련 인사에 대한 테러행위였다. 그리고 이런 테러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앞에서 언급한 단돈 100-200달러에 고용한 수 있는 수많은 청소년 암살자(*sicarios*)의 존재이다. 이와 함께 부패한 군과 경찰들이 메데진 카르텔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였기 때문이다.

메데진 카르텔의 對정부투쟁은 카르텔의 코케인 밀매사업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메데진 카르텔의 경쟁상대인 칼리 카르텔이 점차적으로 미국시장을 잠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면서 양대 카르텔의 코케인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만들었다. 더구나 콜롬비아 밀림지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콜롬비아 최대의 좌파 게릴라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상호협력관계도 게릴라들이 코케인 제조공장을 보호하는 대가로 혁명세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결국은 투쟁관계로 변하였다. 1987년은 한마디로 카르텔과 좌익게릴라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게릴라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다. 따라서 메데진 카르텔의 투쟁 상대는 1988년 1월 검찰총장의 암살의 함께 정부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칼리 카르텔과 농촌지역에서 게릴라 조직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투쟁은 결국 불법 코케인 사업에서의 수익악화로 이어지면서 메데진 카르텔의 몰락

을 재촉하는 요인들로 작용한다. 메데진 카르텔과 정부와의 투쟁의 절정기는 1989년 8월 당선이 거의 확실한 여당 대통령 후보이며 상원의원(Luis Galan Sarmiento)의 암살이다.

이에 대해 바르코 정부는 이를 "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가에 대한 전쟁행위"라고 선언하면서 즉각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새로운 범죄인인도협정을 이슈화하였으며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였다(FBIS 1989/08/21). 그리고 처음으로 카르텔의 두 보스인 에스코바르와 로드리게스에게 2억 5천만 페소(52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카르텔도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1989년 11월 항공기 공중폭파, 12월 콜롬비아 FBI본부에 대한 폭탄테러, 이듬해 3월과 4월 각각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상원의원들의 암살을 포함한 도시지역에서의 수많은 차량폭탄테러로 대응하였다. 한마디로 1989년 8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에서 마약테러는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1989년 12월 카르텔은 현상금을 노린 외국 용병들에 의해 로드리게스가 피살되면서 급격히 몰락하게 된다. 1990년 8월 새로 등장한 가비리아 정부(Cesar Gaviria Trujillo: 1990-94)는 마약테러를 종식시킬 목적으로 범죄인인보협정의 폐지와 메데진 카르텔의 투항이라는 온건정책을 제시하면서 1991년 1월 오초아는 감형조건이라는 정부의 당근정책에 투항하였고 그 해 6월 의회가 100년 만에 헌법을 수정하여 협정을 폐지하면서 에스코바르도 정부에 투항하였다.

3. 공생단계(symbiotic stage)로의 좌절과 사이비 혁명테러(1992.7 - 1993.12)

에스코바르는 정부에 투항 후 1년 뒤인 1992년 7월 호화판 개인용 감옥을 탈출한다. 이 탈출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정부가 군형무소로 이감하려는 것을 에스코바르가 사전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탈출은 어떤 의미에서는 카르텔이 장차 미국과의 범죄인인도협정의 폐지에 따른 정부의 사면령에 의해 카르텔이 합법적인 정치체계로의 재통합과정을 통해 상징적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이 기간 非폭력성을 보인 칼리 카르텔은 정부의 타깃에서 벗어나 오히려 상징적 단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후 카르텔의 마약테러는 1993년 12월 에스코바르가 정부군에 의해 피살될 때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국가에 대항하는 '사이비 혁명테러'의 성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993년 초 에스코바르는 카르텔의 무장조직인 '안티오키아 반군(*Antioquia Rebelde*)'을 결성한다. 이 조직은 레데르의 MAS, 로드리게스의 *los Estraditables*와 함께 카르텔이 세 번째로 형성한 무장조직이다. 카르텔의 테러활동이 혁명적이라는 의미는 테러의 목적을 형식적이나마 국가전복을 기치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혁명테러활동이 '사이비'라는 의미는 기존의 게릴라들과는 달리 단지 국가혼란을 노린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은 전통적 혁명조직들이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폭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단순한 테러 그 자체일 뿐이다. 에스코바르는 1981년 12월 메데진 카르텔의 공식결

성인 MAS의 창설부터 꼭 12년 후인 1993년 12월 정보기관, 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추적반(*Bolque de Busqueda*)'에 의해 그의 고향인 메데진에서 피살된다.

요약하면 메데진 카르텔이 콜롬비아 정부와 투쟁을 벌인 80년대 동안 정부는 공식적으로 反마약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식적으로는 마약비즈니스로부터 획득하는 거대한 불법 마약달러를 선호했다. 정부의 솔직한 마약정책은 마약밀매는 'Yes' 마약테러는 'No'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마약밀매를 필요악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마약관련 정부정책의 기조가 중앙은행을 통해 불법마약달러의 흡입을 선호하면서 非폭력성을 선호한 칼리 카르텔과 폭력성을 선호하는 메데진 카르텔에 대해 대조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10] 그러나 서론에서 지적했듯 마약밀매와 마약테러는 동전의 양면이다. 마약테러의 원인이 마약밀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인 마약테러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이중적 마약정책이 궁극적으로 메데진 카르텔의 부상에 일정부분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V. 결 론

이 글은 메데진 카르텔의 부상과 몰락에 대한 원인분석이다. 카르텔 부상의 요인들로써 마약밀매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마약밀매를 기반으로 어떻게 메데진 카르텔이 파이사라는 사회문

10) 마약달러의 중앙은행 유입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Bagley 1986, 92) 참조.

화적 요인과 콜롬비아 사회에 만연된 후견주의를 적절히 연계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런 이유로 카르텔은 다른 범죄조직과는 달리 단시일 내 조직을 급성장시켰다. 카르텔의 몰락의 원인으로 이 글은 정부와의 폭력투쟁을 지적하였다. 마약조직에게 마약밀매와 마약테러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 하더라고 정부에 대한 정치테러로서의 마약테러는 카르텔 몰락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미국, 이태리, 일본 등 세계 어느 범죄조직도 정부와의 투쟁에서 이긴 사례는 없다. 콜롬비아의 경우 비폭력을 선호하는 칼리 카르텔이 훨씬 오랜 동안 생존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마약테러는 카르텔을 악명 높은 마약조직으로서의 명성을 날렸지만 그 명성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급격한 몰락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학술논문

조성권(1998), "콜롬비아 마약밀매의 원인: 정부의 마약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권), 2(호), pp.109-127.

Abadinsky, Howard(1990), *Organized Crime*, NY: Nelson-Hall, Inc.

Bagley, Bruce(1986), "The Colombian Connection: The Impact of Drug Traffic on Colombia," in Deborah Pacini and

Christine Franquemont eds., *Coca and Cocaine: Effects on People and Policy in Latin America,* Cultural Survival Report, #23.

Bagley, Bruce(1988), "The New Hundred Years War?: US National Security and the War on Drug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30, no.1.

Bequai, August(1979), *Organized Crime,* Lexington: Lexington Books.

Castillo, Fabio(1987), *Los Jinetes de la Cocaina,* Bogota: Editorial Documentos Periodisticos.

Castillo, Fabio(1991), *La Coca Nostra,* Bogota: Editorial Documentos Periodisticos.

Cho, Sung-Kwon(1994), *Narco-terrorism and the State in Colombi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BQ, NM: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Craig, Richard B.(1985), "Illicit Drug Traffic and US Latin American Rela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Fall.

Gugliotta, Guy & Jeff Leen(1989), *Kings of Cocaine: Inside the Medellin Cartel,* NY: Simon and Schuster.

Jaramillo, Mario Arango & Jorge Child Velez(1984), *Narcotrafico Imperio de la Cocaina,* Medellin: Editorial Percepcion.

Jaramillo, Mario Arango & Jorge Child Velez(1985), *Los Condenados de la Coca,* Medellin: Editorial J. M. Arango.

Lee, Rensselaer W.(1989), *The White Labyrinth: Cocaine and Political Power,*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Lee, Rensselaer W.(1990), "Colombia's Cocaine Syndicates," *Conference Paper,* held at the Univ. of Miami, Jan. 5.

Lupsha, Peter A.(1981a), "Drug Trafficking: Mexico and Colomb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35, No.1.

Lupsha, Peter A.(1981b), "The Political Economy of Drug Trafficking in Colombia," *Conferen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US State Department Conference on Colombia, Nov. 9.

Lupsha, Peter A.(1989), "Towards an Etiology of Drug Trafficking and Insurgent Relations: The Phenomenon

of Narco-terro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vol.13, no.2.

Lupsha, Peter A.(1992), "Copying with Transnational Crime: A Focus on Latin American Drug Trafficking Criminality," *Organized Crime: International Strategies*, United Nations & the Univ. of New Mexico.

Mermelstein, Max(1990), *The Man Who Made It Snow*, NY: Simon & Schuster.

Naylor, R. T.(1987), *Hot Money and the Politics of Debt*, NY: The Linden Press.

Pearce, Jenny(1990), *Colombia: Inside the Labyrinth*, London: Latin American Bureau.

Piedrahita, Duardo Cardona(1990), *Colombia: Entre Guerra Sucia y Extradicion*, Bogota: Ediciones Ciencia y Derecho.

Salazar, Alonso(1990), *No Nacimos Para Semilla: La cultura de las bandas juveniles de Medellin*, Bogota: CINEP.

Salazar, J. Alonso & Ana Maria Jaramillo(1992), *Las Subculturas del Narcotrafico*, Santa Fe de Bogota: CINEP.

Walker, William O.(1981), *Drug Control in the Americans*, ABQ, NM: Univ. of New Mexico Press.

2. 신문 및 기타

El Espectador, 1988/01/10.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FBIS), 1984/02/08; 1989/08/21.

Miami Herald, 1984/07/23.

Miami Herald, 1987/02/08.

투고일자 2004년 10월 28일